

AI반도체·전고체전지 등 첨단산업 표준물질 개발 확대

- 국표원, '26년 「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」 15개 신규과제 공고 -

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김대자, 이하 국표원)은 첨단산업 분야 핵심 소재·부품의 측정·분석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물질 개발을 위해, '26년도 「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」의 신규 과제를 1월 3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.

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든 동 사업은 첨단산업에서 표준물질을 활용한 정밀 측정·분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, 신규 과제 지원 규모를 전년(10개 과제) 대비 50% 확대해 추진한다. 이에 따라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바이오 분야 15개 신규과제에 총 48억 원을 지원한다. 아울러 개발된 표준물질이 산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기술지원 등도 뒷받침할 계획이다.

AI반도체 등 고성능 반도체의 정밀 측정을 위한 표준물질, 차세대 전고체 전지 소재 분석을 위한 표준물질 등 이번 공고를 통해 개발될 표준물질들은 우리나라가 주력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측정·분석 기반을 한층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 '26년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고 >

- 지원방법 : 국표원(www.kats.go.kr)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.go.kr) 홈페이지 참조
- 공고기간/지원대상 : '26.1.30.(금)~3.3.(화) 18:00까지 / 기업, 대학, 협회, 단체 등
- 지원규모/내용 : 15개 과제(4,800백만원) /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 지원

김대자 국표원장은 “첨단산업 분야의 측정·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” 이라고 언급하면서, “개발된 표준물질의 산업계 활용·확산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가기술표준원	책임자	과장 직무대리	배진석 (043-870-5340)
	표준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윤남식 (043-870-5348)